

제 3회 『본질적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크리스토퍼 J.코인 · 피터 J.벳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1년 5월 9일 경남 창원시
울타 스테디카페 석전동

4 자본 그리고 생산 구조

자본의 이질성은 사용에서 이질성을 의미한다. 사용에서 이질성은 다중 특수성을 함축한다. 다중 특수성은 보완성을 함축한다. 보완성은 자본 결합들을 함축한다. 자본 결합들은 자본 구조의 요소들을 형성한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본 결합들과 그것들과 함께 자본 구조는 늘 변하고 있을 것이며, 해체되고 재형성될 것이다. 이 활동에서 우리는 기업가의 전정한 기능을 발견한다.

-루트비히 라흐만(1956), 《자본과 그것의 구조》:12-13

자본은 변화무쌍한 것이다.

자본은 후속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재화들을 지칭한다. 자기의 《경제학 원리》에서, 맵거는 생산을 자본재들[그가 "고차재"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는 순차적 과정으로 진술했는데, 자본재들은 결합하여 최종 소비재[그가 "제1차재"라고 부르는 것]를 생산한다. 최종재를 생산하는 순차적 과정에서 그것들이 어디에 낙착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자본재들이 생산 구조에 적합하다.

교과과정 속 경제학의 국민경제 3대 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개념은 잘못 되었다. 경제주체는 “기업, 기업(B2B)”이 옳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급과 수요는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가계와 정부의 거래규모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정부는 생산하지 못하고 소비만 할 수 있다.)

원료들은 고유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그것들이 생산 구조에서 다른, 가치가 부가되는 자본재의 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들의 가치를 도출한다. 및 저차재들도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재의 생산에 대한 자기들의 공헌으로부터 자기들의 가치를 도출한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움직이는 것은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최종 소비재(제1차재)의 기대 가치이다. 시장에서는, 이 주관적인 평가들은 경제 계산에 관해 앞 장에서 논했듯이 자본재들이 시장 가격들에 포착된다.

경제 계산의 논변 이야기.

자본은 플레이-도우(Play-Doh - 어린이의 공작용 점토)의 공(ball)과 유사하다. 똑같은 자본이 설계자가 바라는 무슨 제품으로든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실수가 저질러지면, 자본 자원들은 플레이-도우의 공을 빨리 재형성함으로써 빠르게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재배분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 전통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본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자본은 같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펜치 하나는 한 대의 픽업트럭과 같은 것이 아니다. 각 자본재는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중략- 자본을 동질적인 플레이-도의 공이라기보다 레고(LEGO)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일단의 레고들을 조립하는 바람직한 생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독특한 조각들이 일정한 시간적 순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실수가 저질러지면,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바람직한 생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 레고 조각들이 조심스럽게 제거될 필요가 있고 실수를 교정할 특수한 조각들이 삽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잡한 선진 경제의 특징이 되는 상황이다.

동질성 - Play-Doh(점토) = 금융
이질성 - LEGO(레고블록) = 제조

자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질성, 이질성 둘 다 중요하다.

같은 재화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목적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용에서 이질성을 나타내고, 이것은 어떤 것이 자본재인지가 사람이 그 재화를 어떻게 자기들의 더 넓은 계획들과 목표들에 꼭 들어 맞는 것으로 보는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보강한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자본재인지가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그것의 사용을 인식하는 방법에 달려 있으므로 고정되고 미리 정해진 자본 스톡이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자본 스톡 = Play-Doh(점토) 같은 것 = 돈

경제 행위자들은 다수의 경쟁하는 대안들로부터 이 희소한 자원들의 최상의 용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본 = 용도에 맞게 잘 쓰는 것